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전략 경제 활성화

## 군산시, 도시재생·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총력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배정 방식을 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능 기반구축(199억)사업

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할 방침이다. 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020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도시지역 소규모 소각기 설치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관광지장 상권 활성화 사업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동물보

공조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생활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집중 공략에 나선 방침이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25일 군산시 사이버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다.

## 시민과 더 가깝게 군산시 사이버 기자단 발대식

군산시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2019년 사이버 기자단이 지난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산 알리기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았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통해 군산시를 홍보할 사이버 기자 27명을 선발했다.

이번 기자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이며 파워블로거·대학생·직장인 등 직업군으로 이루어졌다.

기자단의 활동은 주로 행사·축제 등 생동감 있는 현장의 이야기와 전국에 군산의 ▲관광 ▲축제 ▲문화예술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군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기자단이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과 시각을 담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시설사업소, 새해 정례브리핑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소장 서경찬)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정례브리핑의 시간을 갖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문화예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장르의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설문조사 시 선호도가 높았던 뮤지컬, 클래식, 연극, 콘서트 등을 위주로 대중적이고 작품성을 있는 총 22건의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월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수중작가 제나 할러웨이의 대표작 '워터 베이비'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월에는 풍자와 희극의 대명사 대학로 터줏대감 연극으로 유명한 '늘근도둑 이야기'가 배우 박철민 주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월에는 뮤지컬

최고의 여성 디바 3인방 최정원, 전수경, 홍지민의 '3 DIVA' 콘서트가 펼쳐져 관객들에게 활기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클래식계의 빅뱅이라 불리는 '앙상블 디토'와 굵고 힘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이순재 주연의 연극 '말리 할아버지와 나', 창작뮤지컬 '그날',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봄페스티벌', 여름방학 체험전시 등 밀도 높은 라인업으로 기획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현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저렴한 티켓료 책정을 통해 시민들이 문

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국민 공모사업 유치로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시민에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정기대관 신청을 통해 공연 93건 전시 40여건이 접수되어 더욱 풍성한 공연들을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계(☎454-55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명절맞이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설맞이 원산지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설 명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지역서점 신뢰구축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익산시는 지역서점의 신뢰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는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업, 서적으로 등록돼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해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쇄업 등 다

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인 서점(단 8평 이하의 매장은 바닥면적의 50%이상인 서점), 외부간판이 설치돼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러 매장 하나에 한 사업지만 인증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모현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서점은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

시는 인증제를 통해 도서 수요기관에 검증된 서점정보를 제공, 구매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인증서점에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서적으로 등록만 된 유행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또 지역서점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서점들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어린이의회 정기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아동친화도시 군산, 어린이·청소년 정기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군산시는 지난 24일 '제2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정기회'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2018년 3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정기회 2회, 임시회 9회의 바쁜 회기 일정을 순조롭게 마감하는 자리였다.

제3기 어린이 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 ▲참여예산학교 ▲정책제안대회 등 어린이 맞춤형 교육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어린이 청소년 의원대표와 부모님 대표

의 소감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의회 의장의 진행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간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제4기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오는 3월 중 공개모집을 실시해 어린이의원 30명과 청소년의원 30명을 선발하고, 4월부터 발대식 등을 거쳐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한해 군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해 준 제3기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에 감사의 표하며, 앞으로 구성될 제4기 어린이 청소년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사업' 접수

익산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농촌진흥사업은 최고 품질 과제생 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등 모두 4개 사업이다. 농촌진흥사업은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반영하고 농업현장에 시범 적용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

술지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여름철 폭염기 시설상추 생산성 향상,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 수박 품질향상 기술 현장실증 시범 등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펼쳐진다.

시의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등을 전개한다.

신청대상은 해당 사업별 신청기준에 맞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관련법

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읍·면·동 산업계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경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